

온라인 공개 국제학술지 기반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 지리적 시간적 비교 -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Trends Analysi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based on Online Public International Journals

김 성 환 (Sung-Hwan Kim)**

오 효 정 (Hyo-Jung Oh)***

목 차

- | | |
|------------|---------------|
| 1. 서 론 | 4. 연구동향 분석 결과 |
| 2. 관련 연구 | 5. 결 론 |
| 3. 연구대상 수집 | |

초 록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외 기록관리학 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나라별 연구 주제의 동향과 그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기존 수행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연구동향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적합한 8종의 국제 학술지를 선정하고,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통해 국가별 기록관리학 연구논문 게재 지수를 지리적으로 시각화 하였다. 또한 시계열 기반의 내용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의 국제적 연구동향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국내 연구동향과의 연계분석을 위해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 6종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의 거시적 흐름과 나라별 차이를 규명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학문적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trend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To overcom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trends analysis, we selected 8 international journals and visualized impact factors geographically based on published articles from 2000 to 2017. And then we performed timeline based contents analysis. To compare with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we selected 6 domestic journal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and analyzed by same ways. Based on the results, we investigated the marco trends i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dentified the difference among countries, and finally predicted the future research trends.

키워드: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계량분석, 시계열 분석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search Trends, Informatics, Time Series Analysis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13575).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darksky0124@gmail.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ohj@jb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8년 4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4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5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165-189,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2.165]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동향 분석은 한 학문의 일정기간 수행된 연구 활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로, 해당 학문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 방향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은 연구자가 한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이론과 연구영역을 형성하기 전에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이며, 한 학문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연구 영역의 균형적 발전이 필수적이다(김희정 2005).

기록물 관리는 2007년 공공기록관리법이 개정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에서 언급되어 왔다. 또한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전자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전통적인 기록관리 체계에서 나아가 새로운 이론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기록관리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함께 발전하였고 다원화 되어 왔다. 이처럼 기록관리학은 다른 학문과 연관이 많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진행된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들을 세부적으로도 나눠볼 수 있다. 현재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인 학회지 논문들을 선정하고 주제영역을 분석하여 핵심 주제영역과 지적구조를 파악하여 다양한 연구정보들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주제, 학술지, 저자소속 등의 요소에 따라 해당되는 연구 활동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

직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성과를 대상으로 기록관리학의 동향을 살핀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박희진(2014)은 국내 기록관리학의 발전에 있어 부족한 연구주제들과 향후 연구과제 파악을 위해 국내 연구동향 파악과 함께 국외 연구 성과를 통해 국제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아직까지는 기록관리학과 관련된 국외 연구동향의 흐름을 분석하고 국내 연구동향의 흐름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외 기록관리학 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나라별 연구 주제의 동향과 그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기존 수행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연구동향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로 확장, 기록관리학의 국제적 연구동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국외 연구동향과 국내 연구동향의 흐름을 비교하고 각 국가별 기록관리학의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제영역 등의 변화를 살펴 앞으로의 학문적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록관리학 동향을 분석을 위해 온라인 공개 국제 학술지와 국내 주요 학술지로 그 분석 대상을 확장하였다. 온라인 공개 학술지란 온라인 즉 웹을 통해 논문의 서지정보와 초록(abstract) 혹은 전문(full text)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연경(2011)과 배수라(2013)의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 6종의 해외 학술지 인용도 순위를 참조하였다.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6종의 학술지 인용도 상위 10순위의 학술지 중 현재 온라인으로 저널을 공개하고 있으며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온라인상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저자의 국적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학술지의 국제적 저명성을 참고하기 위해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인용색인) 등재 여부를 반영하여 기록관리학 관련 국제학술지를 선정하였다. 현재 인용도 변화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7년 기록관리학회지 참고문헌현황을 참조하여 상위 10개 학술지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논문 영향력지수 SJR(Scimago Journal & Country Rank)을 활용해 총 8개 학술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8개 학술지들로부터 온라인에 공개된 논문 웹페이지를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 수집하여 이중에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한편 학술연구논문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논문 제목에 나타난 키워드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였다. 위 과정을 거친 후 실시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라별 기록관리학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해 논문 출판 빈도를 지리적으로 시각화 하였다. 또한 시계열 기반 논문 출판 현황을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에 영향력이 큰 나라들을 선별, 각 나라별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주요 국가별 총 수집 키워드를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와 해당 국가에서만 등장하는 특정 키워드를 구분하여 각 키

워드들이 등장하는 맥락을 파악하여 연구동향의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셋째, 국가별 세부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5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국가별로 공통키워드와 특징키워드를 분류하여 분기별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분석된 해외 연구동향 시류와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비교하기 위해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 6종을 선정하였으며,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의 분기별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문동향을 예측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2. 관련 연구

기록관리학 분야의 주제영역과 특징을 밝히기 위한 동향 분석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의 지적구조를 분석한 연구로, 김희정(2005)은 1980년부터 2000년도까지 수행된 총 12건의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에 대한 연구들의 지적구조를 분석하여 시대와 저자별로 연구영역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합하여 주요 연구영역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록관리학 연구의 주요 주제영역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김규환, 남영준(2009)은 국내 3종 학술지(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논문 374편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

해 연구대상인 10년간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들의 주제영역을 범주화 하였고 이를 각 변인에 따라 계량 분석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논문들의 주제영역 분포와 연구정보(연구시기, 학회지, 연구자의 소속 및 전공)와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의 동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동향의 주제영역과 인접한 연구정보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남태우, 이진영(2009)은 기록보존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총 4종의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의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수록된 연구논문 399편을 대상으로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주제영역의 분포를 계량적으로 살피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동향과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종의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344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제목의 구문과 의미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의 분포와 경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제목의 구문과 의미 구조를 분석하여, 논문제목에 포함된 키워드의 역할개념으로 '연구 도메인', '연구 대상', '연구 초점'의 3개 요소를 추출하였다. 또한 키워드들을 주제와 내용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추출한 요소에 맞게 군집화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핵심 연구대상을 파악하고 어떤 핵심 연구대상이 어느 연구 도메인에서 어떠한 연구초점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학술지의 연관성과 구

조를 밝히기 위한 연구로 손혜인, 남영준(2016)은 국내 기록관리학 대표 학술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선정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논문 681편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문적 주제 변화 움직임을 분석하고 학제적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학회지별 저자 분석을 실시하여 저자의 소속기관, 직업, 학문 분야를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이어 공저자 빈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각 학술지별 공저 기관의 네트워크 구조를 밝혔다. 한편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기반을 두어 주제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더불어 기관과 주제영역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기록관리학 분야 두 학술지의 주제적 특성을 구분하고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나 시각화 도구 등 보다 개선된 방법과 접목에 관한 연구도 잇달고 있다. 박준형, 오효정(2017)은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 2종과 문헌정보학 관련 학술지 4종의 1997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 1,027건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LDA 토픽모델링과 HDP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LDAvis를 활용한 시각화를 통해 두 토픽모델링의 적용을 비교하여 핵심 키워드 도출 차이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동향 분석을 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연구에 적합한 토픽 분석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국외 연구동향 파악을 위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박희진(2014)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기록관리학 전문학술지인 Archivaria 학회지에 실린 7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별 분포, 주제영역별 키워드 분포를 조사하였다. 먼저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대상 논문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을 3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고 14개 연구 주제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미지역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주요 주제영역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학 연구에 기록관리 원칙과 이론을 적용하는데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기록관리학 연구 주제와 대상선정, 기록관리학 연구방법에 있어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국외 연구동향을 이해하는 다각적인 연구접근으로 윤은하(2011)는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록학 동향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록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키고 다원화된 새로운 전통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북미 기록학계가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 문헌정보학과 역사학의 변화의 맥락 속에서 그 특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논문들은 연구동향 분석 범위를 국내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거나 해외의 경우 분석대상이 적어 대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속성 값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이나 군집화를 통해 보여주는데 그쳤다.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국제 학술지로 확대하였으며 지리적, 시간적 비교를 통해 국제적인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영역력을 판별하고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대상 수집

3.1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살펴기에 적합한 해외 학술지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연경(2011)과 배수라(2013)의 연구를 참조하여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6개 학술지의 국외 피인용 학술지 순위를 참조하였다. 이 중 온라인으로 제목과 초록을 제공하고, 저자의 국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인용색인) 등재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한 온라인 공개 저널 학술지는 <표 1>과 같다. 'American Archivist' 학술지는 SCI에 등재되어 있으며 인용횟수가 가장 높았으나 온라인으로 저널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저자 정보를 알 수 없어 본 연구의 수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또한 인용 횟수로는 4위에 해당하지만 SCI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저널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고, 학술지 'D-LIB'은 온라인으로 저널을 제공하며 저자 정보를 통해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SCI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용도 순위에 따른 국제 학술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으나 이는 2013년 행해진 선행연구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2017년 현재 인용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2017년 현재 인용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학술정보 기록관리학회지 참고문헌 현황(2017)을 참조하였다. 참조 결과 <표 2>와

〈표 1〉 배수라(2013) 논문 참조: 6개 국제 학술지 인용도 상황

	온라인 제공	저자 (국적) 정보	sci 등재	인용 횟수	연구 범위
1. American Archivist	X	X	○	91	X
2. Archivaria	○	○	○	53	해당
3. Archival Science	○	○	○	24	해당
4.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X	X	X	23	X
5. Journal of Society of Archivists	○	○	○	16	해당
6. information and Management	○	○	○	16	해당
7.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	○	○	15	해당
8.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000~2013)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4~2017)	○	○	○	8	해당
9. D-LIB	○	○	X	8	X
10. Records Management Journal	○	○	○	7	해당

〈표 2〉 기록관리학회지 인용도(2017) 참고

	온라인 제공	저자 (국적) 정보	sci 등재	인용 횟수	연구 범위
1. Archival Science	중복	중복	중복	21	해당
2. Records Management Journal	중복	중복	중복	11	해당
3.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 (Archives and Records)	중복	중복	중복	10	해당
4. Archivaria	중복	중복	중복	7	해당
5. Information & Management	중복	중복	중복	5	해당
6.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Quarterly	중복	중복	중복	5	해당
7. Journal of Marketing	○	○	○	4	관계없음
8. Journal of Retailing	○	○	○	4	관계없음
9. The American Archivist	중복	중복	중복	4	X
10. Library Hi Tech	○	○	○	3	관계없음

*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학술정보(2017.10) 참고

같이 순위의 10개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그 중 7개 학술지가 기 선행연구의 순위에 오른 학술지와 동일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술지 'Journal of Marketing', 'Journal of Retailing'는 기록관리학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The American

Archivist'는 선행연구와 중복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제외한다.

추가적으로 학술지 인용 데이터베이스의 양대 산맥인 WoS(Web of Science)와 Scopus 중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Scopus 데이터베이스에

공식 지수로 도입된(이재윤, 최선희 2010) 논문 영향력지수 SJR(Scimago Journal & Country Rank)을 통해 연구대상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SJR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에서 “archival”, “archives”, “record information”, “records management”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얻은 결과 값 중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저널 제공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저자정보를 통해 저자의 국적 정보가 확인 가능하며 SCI에 등재된 조건을 만족하는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이 중 SJR 저널 랭크가 높은 상위 3개

학술지를 연구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그 정보는 <표 3>과 같다.

3.2 수집대상 선정 및 데이터 정제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표 4>와 같이 10개의 수집대상 학술지 중 발간년도가 너무 짧거나 불규칙적인 ‘Archives and Manuscripts’와 ‘Library and Archival Security’ 2개 학술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8개 학술지의 수집기간은 2000~2017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 SJR랭크 반영 추가 학술지 정보

	온라인 제공	저자 (국적)정보	sci 등재	인용 횟수	연구 범위
1. Archives and Manuscripts	○	○	○	SJR 검색	해당
2.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	○	○	SJR 검색	해당
3. Library and Archival Security	○	○	○	SJR 검색	해당

<표 4> 최종 선정된 연도 대상 온라인 공개 저널

	온라인 제공	저자 (국적)정보	sci 등재	수집 범위	수집 상황
1. Archivaria	○	○	○	2000~2017	완료
2. Archival Science	○	○	○	2001~2017	완료
3. Journal of Society of Archivists (2000~2012) Archives and Records (2013~2017)	○	○	○	2000~2017	완료
4. Records Management Journal	○	○	○	2000~2017	완료
5.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	○	○	2002~2014	완료
6. information and Management	○	○	○	2000~2017	완료
7.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	○	○	2000~2017	완료
8.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000~2013)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4~2017)	○	○	○	2000~2017	완료
9. Archives and Manuscripts	○	○	○	2012~2017	제외
10. Library and Archival Security	○	○	○	2006~2013	제외

* 2017.10월 기준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8개 학술지의 웹페이지를 크롤링(crawling)하여 총 7,522건의 논문 정보를 수집하였다(〈표 5〉 참조). 이중 저자의 정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제목과 초록 중 누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북 리뷰 등을 제외하고 논문(article)이라고 명시된 것만 대상으로 데이터를 정제하여 5,989건을 선별하였다. 각 연도별, 학술지별 수집 상황은 〈표 5〉와 같다.

한편 'Information and Managemen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학술지의 경우 기록관리학 전문 분야 뿐 아니라 정보학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문들을 게재하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논문 제목 및 초록, 키워드에 앞서 SJR 검색시 활용한 용어("archives", "record

information", "records management" 등)가 포함된 논문만을 추출하였다. 〈표 6〉은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 수집 통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Information and Management'의 경우에는 전체 수집 논문 1,151건 중 제목과 초록, 저자정보를 보유한 논문 1,103건이었으나, 이 중에서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에 해당하는 413건만 연구대상이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의 경우, 전체 수집 논문 3,675건 중 1,425건이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표 5〉의 정제된 5,989건의 논문 중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별된 논문은 〈표 6〉과 같이 총 3,17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결과에서 명사를 추출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단어 및 키워드로 보기에 난해한 일반어는 불용어(stop word) 처리하였

〈표 5〉 데이터 정제/총 수집 결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Archival Science	X/ X	13/ 13	15/ 15	20/ 20	14/ 14	19/ 19	22/ 22	22/ 22	19/ 19	19/ 19	22/ 22	21/ 21	24/ 24	16/ 16	18/ 18	18/ 18	18/ 18	14/ 14	314/ 314
Archivaria	11/ 11	11/ 11	10/ 10	6/ 6	8/ 8	19/ 19	9/ 9	7/ 7	8/ 8	6/ 6	11/ 11	11/ 11	11/ 11	12/ 12	9/ 9	10/ 10	10/ 10	4/ 4	173/ 173
Archives and Records	X/ 21	X/ 26	X/ 26	6/ 24	13/ 21	4/ 19	8/ 17	9/ 17	8/ 18	7/ 21	11/ 26	13/ 32	6/ 39	14/ 35	8/ 38	12/ 25	12/ 24	14/ 41	145/ 471
Records Management Journal	5/ 10	7/ 12	12/ 12	16/ 16	15/ 15	14/ 14	15/ 16	16/ 16	16/ 16	16/ 16	19/ 20	15/ 15	13/ 13	12/ 12	13/ 13	16/ 16	16/ 16	20/ 20	256/ 268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X/ X	X/ X	23/ 32	X/ X	18/ 27	X/ X	27/ 35	17/ 21	20/ 40	14/ 33	11/ 29	9/ 24	10/ 26	8/ 24	23/ 29	X/ X	X/ X	X/ X	180/ 320
Information and Management	27/ 28	40/ 42	55/ 57	62/ 71	74/ 77	80/ 82	80/ 86	57/ 67	62/ 65	57/ 59	42/ 44	44/ 44	36/ 37	61/ 61	88/ 89	76/ 78	81/ 82	81/ 82	1,103/ 1,151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X/ 39	X/ 43	1/ 39	X/ 49	X/ 55	2/ 77	1/ 57	16/ 71	23/ 66	54/ 96	30/ 69	39/ 78	48/ 96	38/ 59	50/ 83	30/ 60	44/ 68	36/ 47	412/ 1,150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126/ 163	125/ 164	103/ 143	128/ 167	139/ 146	157/ 158	208/ 211	234/ 234	228/ 231	242/ 248	234/ 238	204/ 210	191/ 197	208/ 220	210/ 214	212/ 221	229/ 254	228/ 256	3,406/ 3,675
*연도별 합계	169/ 270	196/ 311	219/ 334	238/ 353	281/ 363	295/ 388	370/ 453	378/ 456	384/ 463	415/ 498	380/ 459	356/ 435	339/ 443	369/ 439	419/ 493	374/ 428	410/ 472	397/ 464	5,989/ 7,522

* 데이터 정제 값/총 수집 값을 나타냄

〈표 6〉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 수집 통계

학술지명	수집범위	전체 수집 수	정제 논문 수	기록관리학 논문 수
Archival Science	2001-2017	314	314	314
Archivaria	2000-2017	173	173	173
Archives and Records	2000-2017	471	145	145
Records Management Journal	2000-2017	268	256	256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2002-2014	320	180	180
Information and Management	2000-2017	1,151	1,103	397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000-2017	1,150	412	315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000-2017	3,675	3,406	1,399
합계		7,522	5,989	3,179

다. 빈도 분석은 공개 소프트웨어인 Text Fixer (<https://www.textfixer.com/>)를 이용하였으며 제목에서 나타난 키워드에는 가중치를 주었다.

3.3 키워드 가중치 변수 설정을 위한 사전 실험

국내·외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제목과 초록을 대상으로 키워드별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의 중요도를 계산하기 위해 해당 용어가 나타난 영역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였는데, 특히 학술분야에서 논문 제목은 연구내용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면서

연구주제가 분명하게 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제목 영역에 나타난 키워드의 가중치를 높게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기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많은 논문을 발간한 국가인 미국을 대상으로 사전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각 연도별로 무작위 샘플을 뽑았다. 이를 대상으로 기록관리학 전공 실험자 10명이 5년 단위로 미국에서 발간한 논문 샘플의 대표 키워드를 20위까지 선정하였다. 해당 리스트와 논문 제목 가중치를 1에서 10까지 각각 적용한 빈도분석 결과 순위의 유사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키워드 중요도 제목 가중치 선정 평가 결과

제목 가중치 a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a=1	20%	25%	40%	30%
a=2	20%	25%	40%	30%
a=3	45%	50%	50%	40%
a=4	55%	60%	60%	55%
a=5	70%	75%	65%	65%
a=6	70%	70%	60%	60%
a=7	55%	60%	55%	50%
a=8	45%	50%	50%	45%
a=9	40%	40%	50%	45%
a=10	40%	40%	50%	45%

테스트 결과 제목 가중치가 낮을수록 키워드의 일치가 매우 낮았다. 또한 가중치가 7~8이 넘어가며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는 높게 설정된 가중치에 따라 제목에서 큰 의미 없이 도출된 단어가 초록에서 유의미하게 등장한 키워드의 순위를 밀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의 사전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실험자 10명이 뽑은 키워드와 가장 비슷한 정확도를 도출하는 제목 가중치는 '5'로, 이후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키워드 추출의 실험변수로 설정하였다.

3.4 비교대상 선정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과 국내 연구동향을 비교하기 위해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같은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수집대상은 2종의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와 4종의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를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가 수집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국내 기록관리학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실제로 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 주제가 자주 게재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수라(2013)의

연구에 따르면 두 학회지의 인용도 역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인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를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기간은 국제 학술지의 수집기간을 고려하여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수집하였으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경우 발간해인 2001년부터로 수집 기간을 선정.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DBpia를 대상으로 크롤링한 결과 전체 5,337건이 수집되었다. 그 중 문헌정보학 관련 학술지에서 기록관리학과 관련된 연구 주제 논문만을 대상으로 선별하였으며 총 1,096건이 수집되었다. 수집상황은 <표 8>과 같다. 해외 연구동향과의 비교를 위해 1,096건 중 영문 초록이나 영문 키워드를 보유하고 있는 논문 743건을 최종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8> 국내 학술지 논문 수집 상황

학술지명	수집범위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 수
기록학연구	2000~2017	475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01~2017	360
정보관리학회지	2000~2017	7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00~2017	7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0~2017	5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0~2017	59
합계		1,096

* 2017.10월 기준

4. 연구동향 분석 결과

4.1 국가별 기록관리학 논문 빈도 분석

수집한 논문의 저자정보를 분석하여 국가별로 구분한 뒤, 주 저자와 공동저자를 나누어 각각 가중치를 적용하여 논문 게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가중치는 한 논문의 저자정보가 하나의 국가 정보를 갖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복수의 국가 정보를 갖는 경우 1을 해당 국가 수 n 으로 나누어 각각 값을 주었다. 예를 들어 게재된

논문이 미국(USA) 하나의 국가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미국(USA)의 총 값에 1을 부여하고, 게재된 논문이 미국(USA), 캐나다(CAN)의 국가 정보를 갖는 경우 각각 국가에 0.5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미국(USA), 영국(UK), 캐나다(CAN)의 경우 0.33씩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도 대상 학술지의 총 국가들에 점수를 주어 살펴본 논문 게재 주요 10개국은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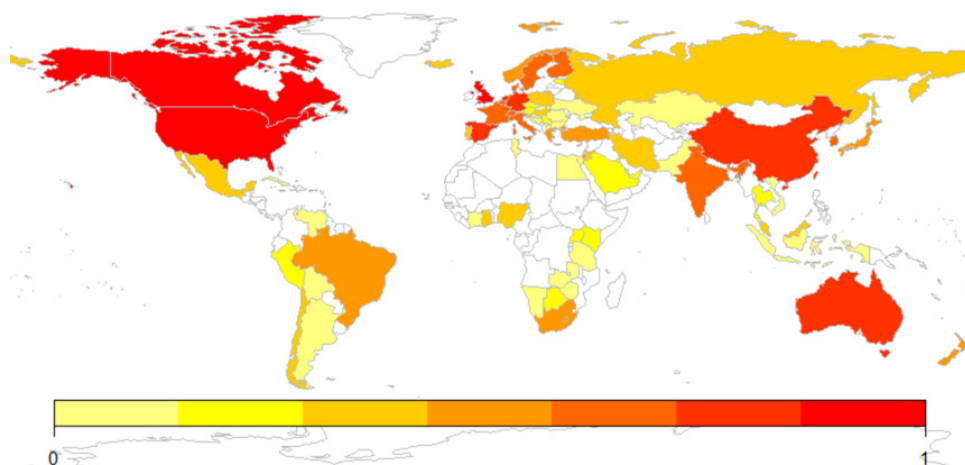
이를 보다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를 정규화 한 총 81개국 각국의 논문 게재 상황은 <그림 1>과 같다. 옅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표 9> 국가별 논문 게재 상황 가중치 top 10국

순위	국가	가중치	순위	국가	가중치
1	미국(USA*)	1,121.76	6	네덜란드(NLD)	104.82
2	영국(UK**)	459.96	7	스페인(ESP)	92.89
3	캐나다(CAN)	288.29	8	독일(DEU)	88.70
4	호주(AUS)	136.55	9	한국(KOR)	54.82
5	중국(CHN)	133.81	10	싱가포르(SGP)	48.75

* ISO3166-1의 alpha-3 표기법을 따름

** GRB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UK를 그대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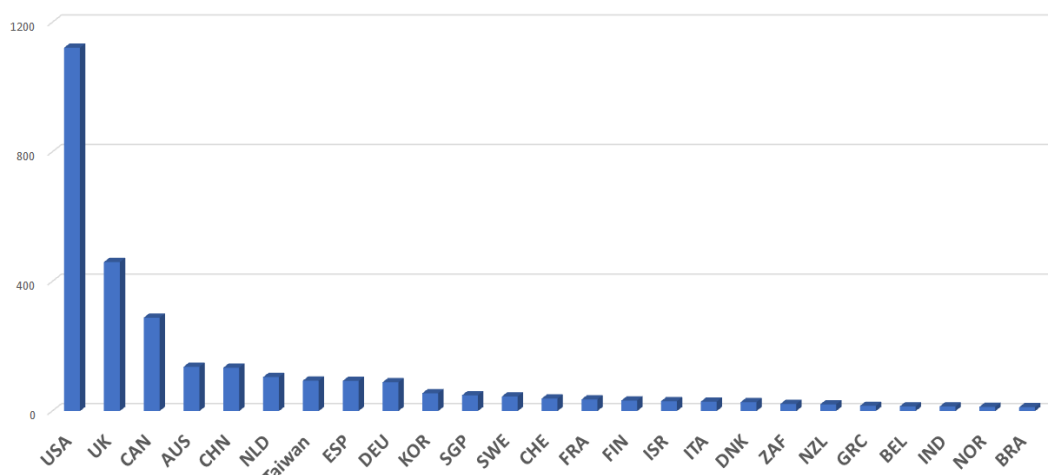


<그림 1> 각 국의 논문 게재 현황

갈수록 게재가 활발한 국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활발한 논문 게재 국가는 미국(USA, 1위)이 독보적으로 많았으며 캐나다(CAN, 3위)가 그 뒤를 이었다. 유럽에서는 영국(UK, 2위), 네덜란드(NLD, 6위), 스페인(ESP, 8위), 독일(DEU, 9위) 등의 국가가 활발한 논문 게재를 보였다. 국내에선 일반적으로 기록관리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프랑스(FRA)는 14위에 머물렀다. 아시아에서는 중국(CHN, 5위), 대만(TAIWAN, 7위), 한국(KOR, 10위), 싱가포르(SGP, 11위), 스웨덴(SWE, 12위), 인도(IND, 23위) 등의 국가에서 논문 게재가 이루어졌으며 이웃나라인 일본은 30위에 해당했다.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호주(AUS, 4위)와 뉴질랜드(NZL, 13위)의 논문 게재가 활발하였다. 남아메리카대륙은 브라질(BRA, 25위)과 칠레(38위)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ZAF, 19위)과 나이지리아(29위) 등의 국가가 주요 논문 게재 국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각 국가의 논문 게재 상황 가중치에 따른 순위 분포이다. 최빈국으로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네덜란드가 이어졌으며 다음으로 스페인, 독일 순서로 논문 게재가 많았으며 한국은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CHE), 프랑스, 핀란드(FIN) 그리고 이스라엘(ISR)의 순서로 논문 게재 최빈국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학술지의 81개 국가 중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대륙별 논문 게재 최빈국 6개국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6개국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 순서로 최빈국인, 미국(USA), 영국(UK), 중국(CHN), 호주(AUS), 브라질(BRA), 남아프리카공화국(ZAF)을 선정하였다. 더불어 기록관리의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위하여 최빈국 3위인 캐나다(CAN)와 한국(KOR)을 추가적으로 선정, 최종 8개국을 대상으로 세부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8개국의 논문 게재상황은 〈표 10〉



〈그림 2〉 논문 게재 순위표

〈표 10〉 8개국의 논문 게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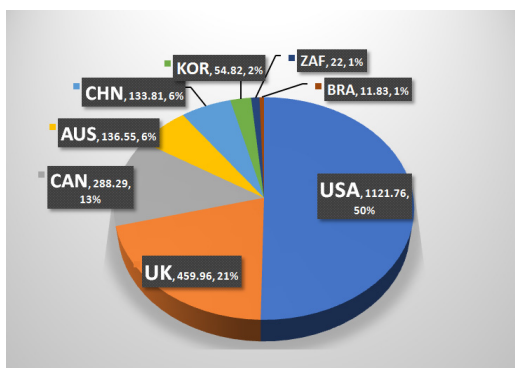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USA	38	38	74	52	69	73	70	86	80	95	74	79	72	78	100	68	76	69	1,291
UK	9	13	15	19	33	21	31	40	28	34	50	30	30	34	42	30	32	47	538
CAN	10	11	17	14	13	30	24	19	24	16	22	21	23	25	21	28	24	22	364
CHN	1	2	1	3	5	4	6	5	11	8	4	7	9	15	21	22	26	21	171
AUS	2	2	4	7	10	9	7	9	7	10	8	12	14	9	10	10	16	19	165
KOR	2	2	1	1	1	2	2	1	4	4	3	5	3	10	9	8	8	6	72
ZAF	1	2	2	0	0	0	2	0	2	2	0	4	3	1	3	4	4	1	31
BRA	0	1	0	1	0	0	2	1	2	2	1	1	1	2	2	1	3	4	24

과 같다. 이를 기준으로 비교한 8개 국가의 논문 게재 비율은 〈그림 3〉과 같다. 미국(USA)이 5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이어 영국(UK) 21%, 캐나다(CAN) 13%, 호주(AUS), 중국(CHN) 6%, 한국(KOR) 2%, 브라질(BRA)과 남아프리카공화국(ZAF)이 각각 1%씩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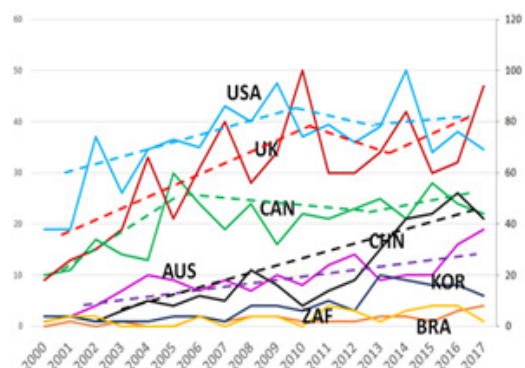
〈표 10〉은 8개국의 연도별 논문 게재 상황을 나타낸다. 연도별 논문 게재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자정보에 국가 정보를 1개라도 가지고 있다면 1의 값을 갖는다. 호주(AUS)와 중국(CHN)의 논문 게재 상황에 있어 〈표 9〉와 다르게 순위변동이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단독 연구보다 다른 나라와 공동저자로서 논문 게재에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도별 게재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그래프는 〈그림 4〉와 같다. 미국(USA)의 논문 게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시성을 위해 보조 축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이중으로 표현하였다. 그래프를 보면 연도별 게재 빈도 추이는 실선으로, 기간 내 변화율 즉 추세선의 기울기는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미국(USA)과 영국(UK)의 경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원만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이후부터 다소 하락하여 두 국가 모두 2013~14년에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



〈그림 3〉 8개국 논문 비율



〈그림 4〉 연도별 추이

이게 된다. 캐나다(CAN)는 초반 2004~6년 구간이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무난한 상승세를 보인다. 중국(CHN)과 호주(AUS)의 경우 2000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2 국가별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4.2.1 국가별 키워드 분석 결과

분석대상 8개국의 국가별 총 수집 결과에서 명사를 추출하고 빈도 분석해 상위 15개의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키워드는 흐린 회색(■)으로 표기한 공통키워드이다. 진한 회색(■)으로 표기한 키워드는 각 국가에서 등장한 특징적인 키워드로 특징키워드로 구분하였다. 흰색으로 표기한 키워드는 두 경우 어느 곳에 해당되지만 맥락 구분이 어려워 의미를 파악하는데 난해

함이 있어 가치가 떨어지는 키워드로 의미 없는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information”의 경우 가장 최빈수로 나타난 키워드긴 하지만 연구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부적절하여 흰색으로, “knowledge”, “system” 등의 키워드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반면 “recordkeeping”, “social” 등의 키워드는 각 국가에서 특정 기간에 대두되는 연구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로 특징키워드로 분류하였다.

4.2.2 국가별 세부 키워드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 세부 키워드 분석을 위해 <표 12>와 같이 각 국가를 5년 단위로 2000~2015년으로 나누어 공통키워드와 특징키워드로 구분하였다. <표 11>과 마찬가지로 공통키워드는 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이며 흐린 회색(■)으로, 특징키워드는 해당 국가와 연도에서 특징적

<표 11> 국가별 전체 키워드 (상위 15개)

	USA	UK	CAN	CHN	AUS	KOR	ZAF	BRA
1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records	information
2	*web	records	archival	online	archival	analysis	archival	method
3	*study	*management	records	*study	records	*knowledge	*management	*web
4	analysis	research	archives	social	*study	social	information	research
5	social	*web	*web	*web	archives	*management	*study	*knowledge
6	research	archives	*knowledge	chinese	data	*systems	archives	training
7	data	digital	*study	*knowledge	research	*study	justice	brazil
8	archival	analysis	*management	*systems	*management	technology	africa	data
9	digital	*impact	digital	model	*systems	performance	public	brazilian
10	model	*study	research	empirical	social	organizational	african	approach
11	online	data	*analysis	*management	*web	edi	ecm	different
12	using	public	*impact	using	model	*web	archivists	author
13	*knowledge	social	theory	analysis	australian	*impact	research	methods
14	*systems	*knowledge	*systems	*impact	recordkeeping	acceptance	*systems	using
15	technology	government	online	research	*impact	quality	institutions	query

* ■ : 공통키워드, ■ : 특징키워드

〈표 12〉 주요 8개국 연도별 세부 키워드

* : 공통키워드, : 특징키워드

(a) USA

2000	2005	2010	2015	통합 키워드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data	model	archival	social	web
study	technology	study	data	study
systems	web	web	study	analysis
support	study	analysis	online	social
digital	electronic	model	security	data
analysis	knowledge	online	knowledge	archival
web	strategic	data	government	digital
end	systems	government	analysis	model
model	analysis	digital	community	online

(b) UK

2000	2005	2010	2015	통합 키워드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data	information
records	records	web	government	records
terms	benefits	study	information	management
models	information	records	journal	web
performance	electronic	analysis	interface	archives
study	web	behaviors	experience	digital
database	study	data	model	analysis
semantic	systems	using	twitter	study
experience	knowledge	creativity	tweets	data
journals	public	social	theory	public

(c) CAN

2000	2005	2010	2015	통합 키워드
information	archival	records	information	information
electronic	archives	management	archival	archival
archives	information	analysis	archives	records
records	records	archival	digital	archives
message	macroappraisal	web	records	web
web	study	information	diplomats	knowledge
system	appraisal	electronic	analysis	study
television	canada	mobile	model	management
archivists	web	theory	knowledge	digital
enabling	analysis	evidence	data	analysis

(d) CHN

2000	2005	2010	2015	통합 키워드
chinese	chinese	information	social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analysis	online	online
knowledge	method	business	study	study
information	model	study	effect	social
strategic	data	semantic	community	web
digital	image	model	knowledge	chinese
alignment organization	knowledge	systems	performance	knowledge
technology	crosslingual	term	business	systems
perspective	documents	centrality	empirical	model
combination	heuristic	web	data	empirical

(e) AUS

2000	2005	2010	2015	통합 키워드
information	metadata	records	information	information
systems	records	recordkeeping	social	archival
continuum	management	management	behavior	records
management	benefits	digital	security	study
aboutness	evaluation	document	adoption	archives
model	software	act	multi	data
alignment interface	information	strategies	business	management
logical	study	model	analysis	systems
heterogeneous	archives	archival	surveillance	social
perspective	open	continuum	systems	web

(f) KOR

2000	2005	2010	2015	통합 키워드
edi	knowledge	knowledge	information	information
design	management	strategies	analysis	analysis
hyperlinking	edi	market	study	knowledge
study	analysis	display	systems	social
electronic	information	storyboard	usability	management
motivations	systems	video	journals	systems
controls	performance	announcements	interactivity	study
relationships	controls	multilevel	social	technology
hyperlinks	ict	interpersonal	security	performance
identify	data	meta	organizational	organizational

(g) ZAF

2000	2006	2011	2015	통합 키워드
records	records	archival	records	records
management	systems	records	justice	archival
zimbabwe	managers	national	archival	management
public	archives	systems	study	information
professionalism	management	organizations	african	study
moral	public	region	economic	archives
communication	methodologies	africa-botswana	public	justice
support	countries	complexity	management	africa
practitioners	perceptual	collaborative	archives	public
practices	support	archives	countries	african

(h) BRA

2001	2006	2010	2015	통합 키워드
documents	information	using	venture	information
medical	web	method	capital	method
automatically	documents	information	scientometric	web
categorizing	language	collections	investment	knowledge
study	classification	web	prioritization	training
experimental	medical	ranking	investments	brazil
algorithm	categorization	unsupervised	analysis	data
subcategory	services	hierarchical	criteria	brazilian
category	financial	structural	technology	using
categorization	brazilian	improve	prioritizing	medical

으로 등장한 키워드이며 진한 회색(■)으로 표기하였다.

먼저 초창기 시대인 2000년도 8개국 키워드를 살펴보면, Adrian Cunningham(2002)이 주장한 호주의 공공기록 관리 전략 중 지적 통제에 관한 접근방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표 12>의 (e) 호주(AUS)의 경우 “continuum” 키워드를 주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속체 이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2>의 (g) 남아프리카공화국(ZAF)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성 배양과 윤리의식 검토에 관한 키워드로 “moral”, “professionalism”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2>의 (c) 캐나다

(CAN) 2005년대에선 “macro appraisal” 키워드가 등장하며 거시적 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듬 해, <표 12>의 (h) 브라질(BRA)에서 “classification” 키워드가 상위권에 있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라질에서 전자기록의 분류체계 작성에 있어 ‘분류’라는 의미로 키워드가 자주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의 (f) 한국(KOR)의 경우 2010년 “multi level” 키워드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다중계층 모형에 대한 논의에서 등장하는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표 12>의 (c) 캐나다(CAN) 2010년 키워드에선 캐나다의 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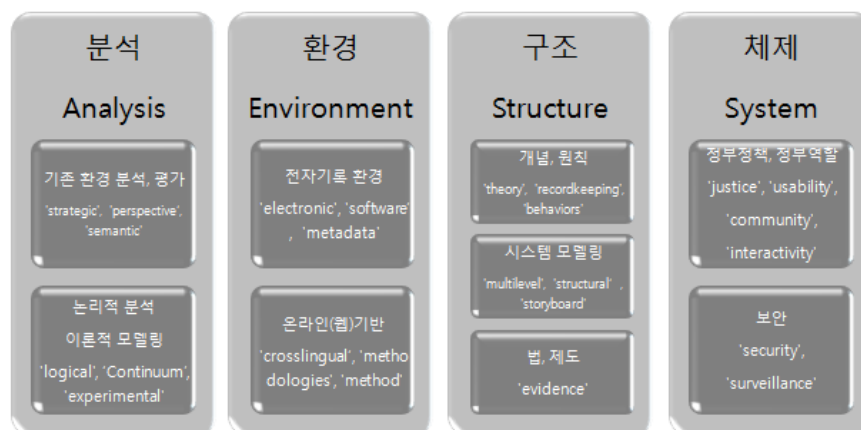
제도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활발해 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위권에 있는 “evidence”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키워드는 기록의 다양한 가치 중 증거로서 의미가 강조되며 ‘증거’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듬해 <표 12>의 (g) 남아프리카공화국(ZAF)의 “complexity”, “collaborative” 등에서도 국가별 기록관리시스템의 복잡성을 분석하고 공공기록 활용과 정부기관의 협업 등 기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2>의 (a) 미국(USA) 2015년에 나타난 “community”라는 키워드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 공공기관의 소셜 미디어 채택과 더불어 보편적 서비스 방안에 대한 제언 중 이용자와 공공기관의 소통을 일컬으며 “community”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government” 키워드가 2010년에 이어 2015년에도 상위권에 속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같은 연도 <표 12>의 (b) 영국(UK)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위권에

속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관료주의적 관점에서 기록평가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이 이어지며 해당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emantic” 키워드는 2000년 처음 영국에서 상위권 키워드에 등장하였으나 이후 영국의 상위권에선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듬해 캐나다에서 “semantic”은 상위권 키워드에 등장하였으며, 2010년 중국과 11년 우리나라에서 등장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두 키워드가 나온 맥락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영국에서 나온 “semantic”의 경우 디지털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의 진본성, 신뢰성 등의 맥락에서 “semantic” 키워드가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는 2010년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중국어의 언어적 의미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semantic” 키워드가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살펴본 8개국의 연구흐름 변화를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의 흐름

먼저 “strategic”, “perspective”, “semantic”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국내·외 기록관리 환경에 대한 분석에 있어 기존 환경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며 더불어 기록관리의 이론적 모델링과 논리적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electronic”, “software” 등 전자기록환경으로 바뀌어 가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접근 방법과 온라인 (웹) 기반으로 변화해 가는 매체와 환경에 대한 키워드가 이어지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theory”, “recordkeeping”과 더불어 행동주의(behaviors) 등의 주제에서 비롯된 키워드를 통해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과 기존시스템에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개념과 원칙, 법제도적 제언, 시스템 모델링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이미 도입 완료된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의 활용·보존과 데이터의 보안상태 점검과 강화에 관련된 주제와 소셜 미디어 매체나 이용자와의 소통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제언들이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은 1) 분석 “Analysis” 2)

환경 “Environment” 3) 구조 “Structure” 4) 체제 “System” 순서로 대 주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3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과의 비교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에서 기록관리학 주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총수집 건수 1,096건 중, 영문초록이나 영문 제목을 보유하고 있는 논문 743건을 대상으로 앞과 같은 방법으로 명사를 추출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어는 불용어로 처리하였다. 또한 사전실험에서 설정한 실험변수를 제목 가중치에 적용하였다. 이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이를 앞서 분석한 <표 12>의 (e) 한국(KOR)의 5년 단위 세부 키워드 분석과 비교하였다. 상위권에 등장하는 공통키워드는 비슷하였지만 국내 키워드의 경우 특징이 돋보이는 키워드는 “education”, “modern”등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theoretical”의 경우 <표 12>의 (e)에

<표 13> 국내 기록관리 관련 키워드

2000	2005	2010	2015
public	records	records	archives
america	archives	information	records
archival	information	study	study
techniques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records	preservation	digital	management
archivists	electronic	system	focused
education	government	preservation	presidential
theoretical	media	metadata	system
modern	system	education	contents
system	standard	standard	national

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맥락이 앞서 살펴본 기 환경의 기록관리 상황에 대한 분석, 이론적 모델 제시 등에 있어 동일한 맥락에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전자기록 환경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등장한 “media”와 새로운 매체 적용과 이후 시스템 적용에 있어 국내표준과 국제표준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며 “standard”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는 점을 살펴 볼 수 있었다. 2010년에는 전자 정부 환경으로 바뀌어 가며 “digital”에 대한 내용이 주로 등장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환경에서의 장기 보존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며 더불어 메타데이터가 강조되며 “preservation”, “metadata” 두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하였다. 2015년에는 정부의 서비스 제공과 장기보존 표준화 과정 검토, 위키 백과, 트위터 등 네트워크 분석으로 주요점이 변화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상 기록의 진본성, 신뢰성 확보와 보안성 측면, 서비스 콘텐츠의 변화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의 설치와 활용 방안에 있어 “presidential”, “contents”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상위권에 등장하는 키워드의 맥락 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 영역의 주안점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었다. 각 년도에 상위권에 해당하는 키워드의 등장 배경은 <그림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중 국내 연구동향의 경우 교육, 대통령기록물과 같이 기록물 활용을 위한 방안과 서비스, 각종 문화 매체로의 활용과 관련된 사안들이 눈에 띄는 점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사회적인 움직임이나 다양한 정부 활동, 연구 접근방법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

로 판단된다.

4.4 시사점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먼저 국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문 게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지리적으로 시각화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영미권 국가에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각 대륙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중국, 영국,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국제적으로 논문 게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대륙별 주요국의 연도별 추이를 통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와 낮아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표 11>의 대륙별 주요 국가의 총 수집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주요 8개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키워드이다. 그러나 <표 14>와 같이 국가별 특징적으로 드러난 키워드들을 통해 국가별 주요관심이나 연구 주제가 다르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주요 8개국의 연도별 키워드를 5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가별 세부 키워드 분석에서 2000년도를 살펴보면 호주에선 패러다임 변화 분석과 연속체 이론, 검색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 등의 맥락에서 주요 키워드들이 등장하였으며 브라질에선 “documents”, “automatically”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사무 자동화에 관한 연구

〈표 14〉 주요 8개국 총 수집결과 특징키워드

AUS	BRA	CAN	CHN	KOR	ZAF	UK	USA
social	method	digital	online	technology	justice	digital	analysis
australian	training	theory	chinese	performance	african	analysis	social
recordkeeping	brazilian	online	empirical	organizational	institutions	public	digital

가 주로 등장하였다. 중국에선 전자기록 환경에서 중국어 색인 결합 연구에 있어 “chinese”, “strategic”, “combination”, “organizational” 등이 등장하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2005년에는 캐나다의 거시적 평가 “macro appraisal”, 영국에선 디지털 라이브러리, 전자기록 보존, 시스템 분류 “electronic”, “public”, “systems” 등이 등장하였다. 2010년에는 한국의 다중계층모형 “multilevel”, 전자정부를 위한 기술융합 모델 제시 “framework” 남아공에선 국가별 기록관리시스템 분석, 공공기록물 활용과 정부기관의 협업과 관련하여 “national”, “organizations”, “region”, “collaborative”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했다. 2015년은 다수의 국가에서 모바일 사용 편의성 검토, 소셜 미디어 채택 비판, 사이버 보안, 장기보존 표준화 과정 검토, 전자정부 전략방안, 정부의 정보제공 주체로서 역할, 웹 디자인, 행동주의 등 “security”, “government”, “public”, “usability”, “behavior”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5년 단위 국가별 특징키워드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국의 관심 주제나 연구동향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대략적인 국제적 연구 흐름의 범주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의 상황과 비교해본 결과,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에서의 공통키워드 역시 국

제적 흐름과 유사한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징키워드의 경우도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과 유사한 배경을 띠다고 볼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 〈표 12〉의 주요 국가별 키워드와 비교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독특한 연구부분에서 유의미한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과 같은 주제영역에 부재, 공공기록물 위주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 등을 엿볼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8개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논문 제목, 요약, 키워드 및 저자 정보 등을 수집, 총 7,522의 논문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중에서 정제와 선별 작업을 통해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 3,179건을 대상으로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제적 연구동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각 대륙별 논문게재 최빈국 6개국과 논문게재 최빈국 3위인 캐나다와 10위 한국을 추가하여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살펴볼 주요 8개국을 선정하였다. 이들 주요 8개국의 연구 주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로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명사를 추출하고 논문 제목에 가중치를 주어 빈도 분석하여 상위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각 국가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 키워드와 해당 국가에서만 등장하는 특징키워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연구동향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국가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하여 공통키워드와 특징키워드로 세분하였다. 그 결과 2000년 호주의 “continuum”, “perspective” 2005년 캐나다의 “macro appraisal”, 브라질의 “classification”나 2010년 한국의 “multi level” 키워드 등에서 서로 다른 맥락과 주제에서 높은 빈도수로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분석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과 국내의 연구동향을 비교해보기 위해 국내 6개 학술지를 선정하여 이중 기록관리학 관련 주제의 논문 1,096건을 선별하였다. 이 중 영문 초록과 영문 제목을 보유하고 있는 논문 총 743건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해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주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 ‘환경’, ‘구조’, ‘체제’ 순서로 대주제의 흐름을 보였다. 둘째, 국가별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의 변화 상황은 전체적으로 국제적 흐름과 같이 변화하지만 각 나라에 따라 주제의 등장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나라의 환경에 따라 같은 주제가 다른 맥락에서 출현하거나 같은 주제가 다른 키워드로 등장하는 현상을 통해 각 환경과

시기에 따라 연구의 주안점이 다르게 맞춰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내 연구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전체적인 흐름에 따르고 있는 한편, 국내의 연구 논문에서만 두드러지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통 혹은 특징키워드나 대주제의 흐름 분석 결과는 그동안 기록관리학 내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을 살펴볼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외 연구동향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해외에서는 정부의 역할이나 이용자와의 소통 등 사회정의 실현 방안에 대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가 하면, 국내의 연구동향은 다양한 매체와 정보를 차용한 기록물 관리와 이용 활성화 방안에 주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국내·외 기록관리학의 연구동향을 지리적,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석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나 각 학술지의 특징적인 연구 접근방식이나 연구 내용 및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단순 키워드를 통해 모든 주제 영역을 살펴보기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 주요국에서 동 시대에 어떠한 주제들이 각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록관리학이 특정 현상이나 기록이라는 단일 대상의 연구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접한 학문과 사회현상과 연관되어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각 저자들 간 관계에 대한 지적 네트워크 분석이나 공통키워드와 특징키워드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나아가 상위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 연구 논문에 대한 질적 분석이나 각 학술지에 대한 국가별 특성과 환경에 대한 연관 분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 [2]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논문제목의 구문 및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417-439.
- [3]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4] 김희정. 2006.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25.
- [5]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 [6] 네이버 학술정보. [online] [cited 2017. 10.] <<http://academic.naver.com/>>
- [7] 박준형, 오효정. 2017.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토픽모델링 기법 비교: LDA와 HDP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235-258.
- [8] 박희진. 2014. Archivaria 리뷰를 통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99-125.
- [9] 배수라. 2013.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물관리학과.
- [10] 손혜인, 남영준. 2016. 기록관리학 분야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1): 85-110.
- [11] 윤은하. 2011.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7-94.
- [12] 이재윤, 최선희. 2010. 국내 학술지의 인용 네트워크 지수 측정.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5-20.
- [13] 정연경. 2011.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2001년-2010년)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367-391.
- [14] Cunningham, A. 1998. "Dynamic Descriptions: Australian Strategies for the Intellectual

Control of Records and Recordkeeping Systems.” Presented at *Royal Society of Archivists of the Netherlands Symposium*, October 23, 1998, Amsterdam, 이승익 번역. 2002. 호주의 공공기록 관리 전략: 동적 기술(dynamic description). 『기록보존』, 15: 171-18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Gyu-Hwan and Nam, Young-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217-239.
- [2] Kim, Gyu-Hwan, Jang, Bo-Seong and Yi, Hyun-Jung. 2009.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Ba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Article Titles,”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417-439.
- [3]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07-224.
- [4] Kim, Hee-Jung. 2006. “A Study on the Serial Analysis and Expansion of Research Areas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5-25.
- [5] Nam, Tea-Woo and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 [6] Naver Academic. [online] [cited 2017. 10.] <<http://academic.naver.com/>>
- [7] Park, JunHyeong and Oh, Hyo-Jung. 2017. “Comparison of Topic Modeling Methods for Analyzing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LDA and HDP,”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235-258.
- [8] Park, Heejin.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in North America through the Review of Archivaria,”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4): 99-125.
- [9] Bae, Su-Ra. 2013. *Comparativ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 [10] Sohn, Hye In and Nam, Young Joon. 2016.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es

-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1): 85-110.
- [11] Youn, Eunha. 2011. “Archival Studies in North America: Current Developments and Trend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77-94.
- [12] Lee, Jae-Yun and Choi, Seon-Heui. 2010. “Measuring the Prestige of Domestic Journals in Korean Journal Citation Network.”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5-20.
- [13] Chung, Yeon-Kyoung. 2011. “A Reference Study o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during the Period of 2001-2010.”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2): 367-391.
- [14] Cunningham, A. 1998. “Dynamic Descriptions: Australian Strategies for the Intellectual Control of Records and Recordkeeping Systems.” Presented at *Royal Society of Archivists of the Netherlands Symposium*, October 23, 1998, Amsterdam, Translated by Lee, Seung Eok. 2002. “Descriptions: Australian Strategies for the Intellectual Control of Records and Recordkeeping Systems.” *Archives*, 15: 171-183.

